

##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이 혜 성                      홍 혜 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진로상담 내담자에 대한 차별적 진단의 한 방법으로서, 진로결정상태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Jones와 Chenery(1980)의 삼차원적 진로결정상태모형을 이루는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이 모형의 적용가능성, 이 모형에 따른 유형화의 결과 및 각 유형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대학생 330명(남학생 176명과 여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프로파일의 결정성척도 및 편안성척도, 진로결정수준검사, 특성불안검사, 진로정체감검사, 내-외 통제 척도를 실시한 후 상관분석, 군집분석 및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진로결정상태모형을 이루는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를 요약하고 유형화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유형은 여섯 개로 나타났다. 각 유형에는 그 특성에 따라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잠정결정형, 불안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 이 여섯 개의 유형은 군집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인 및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 등 외적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군집 분류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한편, 유형들간의 차이를 부각시켜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관련지어 논의한 후, 대학생 진로상담에 주는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학생에 대한 진로상담의 과정은 내담자가 현재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즉 내담자의 진로결정상태(career decision status)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로결정상태'는 '진로 미결정(career indecision)'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비교적 최근에 통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따라서 우선은 진로 미결정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진로 미결정이라는 연구주제는 외국에서는 이미 진로상담 분야의 중심적인 연구주제들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Gati, Krausz, & Osipow, 1996). 그러나 이 주제가 명시적으로 우리 나라에 소개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1995년에 발표된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라는 논문에서 김봉환과 김계현은 진로 미결정이 진로상담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관련된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이 논문을 통해 진로 미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요약한 후,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문제들을 탐색하여 진로 미결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진로 미결정이라는 구성개념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이 겪는 문제들을 지칭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Gati et al., 1996). 그러나 진로 미결정이라는 구성개념의 구체적이고 명료한 정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던 초기에 Crites(1969)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미결정이란 개인이 구체적인 직업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행동의 과정을 선택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을 가리킨다"고 정의했다(p.303). 그러나 진로 미결정과 관련해 상당한 양의 연구가 축적된 지금은 미결정을 단순히 무능력으로 평가하는 이 정의는 더이상 수용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진로 미결정에 대한 최초의

단행본으로 보이는 'The Undecided College Student'를 쓴 Gordon(1995)은 그 서문에서 진로 미결정자를 교육적, 직업적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지 않거나, 내릴 수 없거나, 또는 내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명시하였다.

Crites의 정의가 시사하듯 진로 미결정에 관련된 초기의 많은 연구들은 진로 미결정을 부적응적인 것으로 단정짓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결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진로 결정자들과 미결정자들이 능력, 흥미, 성격 특성 등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예: Ashby, Wall, & Osipow, 1966; Bohn, 1968; Baird, 1969; Greenhaus & Simon, 1977; Harman, 1973; Larson & Heppner, 1985; O'Hare & Tamburri, 1986; Taylor, 1982; Taylor & Bets, 1983; Wigent, 1974).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결과가 혼란을 보이면서 진로 미결정이라는 구성개념을 결정 對 미결정으로 이루어진 이분법적 변인으로 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Larson, Heppner, Ham, & Dugan, 1988). 즉, 미결정에도 이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진로 미결정에 관련된 근래의 모든 연구는 진로 미결정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표현양상과 원인들을 가진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Fuqua, Blum, & Hartman, 1988)임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인다.

근래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의 주요 경향은 미결정자들을 이질적인 집단으로 명백히 개념화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하위유형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그동안 미결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심리적 변인들을 가

려낸 후, 미결정의 하위유형들이 이러한 변인들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Gordon, 1995, p. 13).

진로 미결정의 유형에 대한 관심은 진로상담의 실제에 있어서 각 유형의 문제 및 특성에 따른 상담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에 기인한다(예: Barak & Friedkes, 1981; Heppner & Hendricks, 1995; Lucas, 1993; Mendoca & Siess, 1976; Osipow, Carney, & Barak, 1976; Robbins, 1987). 김봉환(1997)은 이를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라는 말로 요약하였다. 차별적인 처치를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내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이다. 이렇게 볼 때 진로 미결정의 유형 연구는 체계적이고 간명한 차별적 진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진로 미결정의 유형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진로 미결정'이 이미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이 아니라 '진로결정상태'라는 개념을 쓰기로 하였다. 이것은 미결정의 유형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이 '진로 미결정의 유형'보다는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이라는 개념으로 보다 정확하게 지칭될 수 있는 연구 결과(Callanan & Greenhaus, 1992; Jones, 1989; Jones & Chenery, 1980; Newman, Fuqua, & Minger, 1990; Savickas & Jarjoura, 1991; Wanberg & Muchinsky, 1992)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들은 유형화에 있어서 진로 미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진로 결정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진로 미결정이라고 해서 항상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진로 결정이라고 해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김봉환, 1997;

Goodson, 1981; Larson & Heppner, 1985; Walters & Saddlemire, 1979) 진로상담의 실재를 고려할 때 이런 관점의 중요성은 명백하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을 진로 미결정자들에 국한시키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진로 결정자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서, '진로 미결정' 대신에 Wanberg와 Muchinsky(1992)의 논문제목에도 나타나 있는 '진로결정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진로결정상태란 개인이 진로 결정의 과정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점, 즉 진로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현재 상황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상태를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진로결정상태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실제로 진로 미결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을 진로 미결정자로 볼 것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들 간에 차이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미결정을 서로 다른 의미로 정의하고 이해해 왔던 것이다(Gordon, 1995). 이 개념화를 둘러싼 문제는 최근이야 비로소 명백히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도 진로 결정상태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진로 미결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본 결과 본 연구는 Jones와 Chenery(1980)가 제시한 진로결정상태모형(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이 개인의 진로결정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간명한 체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진로결정상태모형은 Jones와 Chenery(1980)

에 의해 진로 미결정의 하위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로서 제안되었다. 그들은 이 분야의 거의 모든 연구들이 진로 미결정 및 진로 미결정자, 그리고 미결정은 불편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지적하고, 보다 포괄적이며 분화된 개념으로서 '진로결정상태(vocational decision status)'를 '진로 미결정'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진로결정상태는 미결정자뿐 아니라 결정자들을 포함하며, 미결정은 불편한 것이고 결정은 편안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성의 차원을 별도로 포함시키며, 한 사람의 미결정에 대한 이유의 총합이 미결정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의 차원을 포함시킨다 (Jones, 1989). 즉 진로결정상태는 결정성(decidedness), 편안성(comfort), 이유(reasons)의 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성의 차원만으로는 진로결정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경험적인 연구들(Callanan & Greenhaus, 1992; Jones, 1989; Jones & Chenery, 1980; Larson & Heppner, 1985; Newman et al., 1990)을 볼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진로결정상태를 파악하는 이 모형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는 결정 및 미결정의 하위집단 간의 질적인 차이가 편안성과 이유의 차원에 따라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결론짓기는 이르다. Slaney (1988)가 진로결정상태의 측정도구인 Vocational Decision Scale(VDS: Jones & Chenery, 1980)에 대한 논평과 관련하여 그 하위척도들이 진로상담 내담자들의 서로 다른 필요들을 탐색하기 위한 유망한 접근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Jones, 1989)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로서는 Wanberg와 Muchi

-nsky (1992)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진로결정상태모형을 채택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모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의 유용성 여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진로결정상태모형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를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측정도구로서는 VDS나 그 개정판인 Career Decision Profile(CDP: Jones, 1989)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으며, 유형화에 있어서 Jones(1989)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지도 않는다. 대신에 결정성 차원과 편안성 차원은 CDP의 해당 하위척도로 측정하고, 이유 차원은 Career Decision Scale(CDS: 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er, 1976)을 이루는 두 하위척도 중의 하나인 미결정 척도(Indecis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된 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하여 이 세 차원에 따른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CDP의 이유척도가 진로 미결정 관련문헌들을 검토한 후 미결정 이유에 대한 7개의 범주를 선택적으로 가려내고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이유에 해당하는 하위척도로 구성된 것(Jones, 1989)과는 달리, CDS의 미결정 척도는 진로상담 내담자들에 대한 면접 경험을 기초로 추출된 16가지의 서로 다른 미결정의 선행조건들(antecedents)로 구성되었다. CDS의 미결정 척도는 CDP의 이유 척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등 더욱 다양하고 실제적이며 복합적인 미결정의 선행조건들(이유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현상(Hartman, Fuqua, & Jenkins, 1986)인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군집분석은 동질적인 개인들의 집단들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근래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미결정 유형 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을 통해 진로 미결정 또는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을 알아내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진로결정 관련변인 및 성격변인들을 군집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유형의 수나 내용에 있어서 연구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내어놓았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진로 미결정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성격변인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자들마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변인들을 군집분석에 포함시킨 결과, 연구결과들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둘째, 진로상담의 실재를 고려할 때, 진로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을 진단함에 있어서 많은 수의 성격변인들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성격변인들을 군집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진로결정상태의 측정 결과만을 군집분석한 후 하위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유형들 간의 성격 차이를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형들의 특성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진로결정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들 중 특성불안(Goodstein, 1965; Fuqua & Hartman, 1983; Hartman, Fuqua & Blum, 1985; Hawkins et al., 1977; Kaplan & Brown, 1987; Kimes & Troth, 1974; Mendoca & Siess, 1976; O'Hare & Tamburri, 1986; Van Matre & Cooper, 1984), 진로정체감(Fuqua & Newman, 1989; 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Hartman, Fuqua & Blum, 1985;

Holland & Holland, 1977; Long, Sowa & Nile, 1995; Newman, Fuqua & Minger, 1990), 통제소재(Hartman, Fuqua & Blum, 1985; Taylor, 1982; Taylor & Popma, 1990) 등을 진로결정상태의 유형들과 관련시켜 보고자 한다. 이들은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하위집단 간의 변별에 유용한 변인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진로상담의 실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위집단에 따르는 차별적인 처치방법의 고안에 유용한 변인들이라는 판단에 따라 선택되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Jones와 Chenery(1980)의 진로결정상태모형을 수용하되 그 측정에 있어서 결정성 차원과 편안성 차원은 CDP의 해당척도를 채택하고, 이유차원은 CDS의 미결정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 이 모형의 유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진로결정상태모형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가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유형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 나라 진로 집단상담 및 진로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내담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프로그램에 의해 무차별적인 처치를 해왔음을 고려해 볼 때, 진로상담 내담자들을 차별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진로상담의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전 단계의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진로결정상태모형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을 나누는 데 얼마나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둘째, 진로결정상태모형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는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가?

셋째, 각 유형은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등의 변인들과 관련하여 서로 어떻게 다른 특성들을 보이는가?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 3개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총 43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3개의 대학교는 취업조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상위로 평가되고 있는 학교들이었다. 수거된 질문지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9명의 자료와, 학과의 특성상 구체적인 진로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간호대, 약대, 예체능 계열에 속한 9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남은 총 330명의 자료가 최종적인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및 학과계열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학과계열별 분포

구분	남	여	전체
인문대	35(10.61)	38(11.52)	73(22.12)
사회대	29(8.79)	29(8.79)	58(17.58)
경상대	52(15.76)	12(3.64)	64(19.39)
사범대	3(0.91)	4(1.21)	7(2.12)
자연대	15(4.55)	61(18.48)	76(23.03)
공대	42(12.73)	10(3.03)	52(15.76)
1학년	70(21.21)	60(18.18)	130(39.39)
2학년	46(13.94)	45(13.64)	91(27.58)
3학년	37(11.21)	19(5.76)	56(16.97)
4학년	23(6.97)	30(9.09)	53(16.06)
총계	176(53.33)	154(46.67)	330(100.00)

단위 : 명 (비율)

### 2. 조사절차

1997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3개 대학교의 5개 심리학 교양과목 수업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 또는 담당 선생님이 질문지 표지에 있는 지시사항을 읽어 준 후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다. 질문지는 조사 과정에서 순서효과가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의 측정도구를 상쇄법(counterbalancing)으로 제시하되 성격 관련도구들을 진로 관련 도구들의 앞에 제시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성격 척도들에 대한 반응에 진로 관련척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Taylor, 1982).

### 3. 측정도구

#### 1) 진로결정상태

본 연구에서 개인의 진로결정상태는 진로결정상태모형을 이루는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에 따라 규정된다. 결정성 차원과 편안성 차원은 Career Decision Profile(CDP)의 결정성 척도(Decidedness scale) 및 편안성 척도(Comfort scale)를 사용해, 이유차원은 Career Decision Scale(CDS)의 미결정척도(Indecis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DP는 삼차원으로 구성된 진로결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VDS(Jones & Chenery, 1980)를 Jones(1989)가 개정한 것이다.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유 척도는 다시 4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결정성 척도는 직업적 선택에 있어서의 확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안성 척도는 진로결정상태

에 대해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CDP의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8)'의 Likert식 8점척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결정성과 편안성 척도의 점수는 각각 2점에서 16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결정성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미결정수준이 높음을, 편안성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 결정 상태에 대하여 편안하게 느끼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결정성 척도의 신뢰도는 검사-재검사신뢰도가 .66이었고, Cronbach's  $\alpha$ 는 .85로 보고되었다. 결정성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Slaney가 Occupational Alternatives Question (OAQ : Zener & Schnuelle, 1976)에서 이끌어낸 진로 미결정 목록과의 상관( $r=-.46, p<.0001$ )과, 진로 중요성 변인과의 상관( $r=.39, p<.0001$ )으로 검증되었다. 편안성척도의 신뢰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6이었고, Cronbach's  $\alpha$ 는 .82로 보고되었다. 편안성척도의 구인타당도는 결정성척도와의 상관( $r=.65, p<.0001$ )과 Slaney가 OAQ에서 이끌어낸 진로 미결정 목록과의 상관( $r=-.31, p<.001$ )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성과 편안성 척도만을 사용하는데,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하는 두 사람에게 의뢰해 3차에 걸쳐 번안했고 진로 상담 분야의 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결과, 결정성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4로, 편안성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6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CDS는 교육적-직업적 미결정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에 따라 Osipow, Carney, Winer, Yanico 및 Koschier(1976)에 의해 개발되었다. 확실성 척도(Certainty scale)와 미결정 척도(Indecision scale)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19문항으로 되어 있다. 미결정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3~18은 진로상담 내담자들에 대한 면접 경험을 기초로 추출된 16가지의 서로 다른 미결정의 선행조건을 측정한다. 선행조건들(이유)에 따른 미결정의 각 유형은 서로 독립적이고, 각 유형에 적합한 상담적 개입과 관련되도록 설계되었다(Osipow Carney, & Barak, 1976). 미결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식 4점 척도이다. 채점방법은 16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체크한 점수를 합산하는데, 총점은 16에서 64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미결정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미결정 척도의 신뢰도는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90과 .82로 보고되었다.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진로상담 내담자와 일반 대학생 간의 미결정 수준에서의 차이와, 체계적 진로상담을 통한 미결정 수준의 감소 효과로 검증되었다. 준거타당도는 여타 미결정 측정도구들과의 상관관계로 거듭 검증되었다(Chartrand & Camp, 1991).

본 연구에서는 미결정 척도만을 사용하는데,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향자에 의하면 미결정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 반분신뢰도는 .80,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결정 척도의 타당도는 의사결정유형 변인과의 유의한 상관관계( $r=-.24$ 에서  $r=.44$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미결정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8로 양호한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 2) 특성불안

특성불안 측정 도구로는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검사(STAI: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를 김정택, 신동균(1978)이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상태-특성불안 검사 중 특성불안척도(Form X-II, A-T)를 사용하였다. 특성불안 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채점방법은 20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체크한 점수들을 모두 합산하는데 7개의 도치문항(문항 1, 6, 7, 10, 13, 16, 19)은 역산하여 채점한다. 개인의 총점은 20점에서 80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택, 신동균이 1978년 한국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시킨 연구에서 특성불안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결과 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갖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 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측정도구로는 Holland, Daiger 및 Power(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는 '아니다'에 응답한 반응의 총 수로 계산되며, 높은 점수는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음을, 즉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한 보다 명확한 상(picture)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다' 혹은 '아니다' 대신에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는 18점에서 72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음을 나타낸다.

검사 제작자들이 보고한 정체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Tinsley, Bowman 및 York(1989)는 본 도구와 진로관련 세 가지의 다른 도구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중첩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본 도구가 진로자아개념의 명료성(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을 측정한다고 언급하였다(김봉환, 1997에서 재인용). 그리고 Holland, Johnson 및 Asama(1993)는 본 도구를 사용한 50여편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 도구가 적절한 수준의 구인 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였다(김봉환, 1997에서 재인용).

김봉환(1997)은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한 조사 결과 진로정체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89, 반분신뢰도 .86, 거트만 반분계수 .85 등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결과 Cronbach's  $\alpha$ 는 .89로 김봉환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 4) 통제소재

통제소재 측정도구로는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가 제작한 내-외 통제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tter(1966)가 만든 내-외 통제척도(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I-ECS)를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이다. 최종검사의 신뢰도는 여대생 집단에서  $K-R_{20} = .46$ 이었고, 기혼 여성 집단에서는  $K-R_{20} = .73$ 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여대생 집단에서 .91로 보고되었다. 채점방식은 허구문항(문항 1, 5, 9, 12, 15, 19)을 제외한 15개의 내-외 통제 문항에 체크된 것을 외적 통제 정향성의 정답지에 비추어 세는 것으로, 최고 점수는 15점이고 최하 점수는 0점이다.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외적 통제 정향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자료처리

우선 결정성, 편안성, 미결정, 특성불안, 진로 정체감, 통제소재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을 나누기 위해 결정성, 편안성, 그리고 이유 차원을 측정했던 미결정 척도의 각 문항점수들에 대해 군집 분석을 실시했다. 결정성과 편안성은 총점으로, 미결정 척도는 각 문항점수로 처리했다. 미결정 척도의 16개 문항은 미결정에 대한 서로 다른 이유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각 문항들 자체가 이유에 따른 16개의 유형을 대변토록 제작되었다. 따라서 미결정척도를 총점으로 분석할 경우 단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한 정보가 손실되므로, 각 문항점수를 군집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군집 분석의 여러방법 중에서는 Borgen과 Barnett (1987)에 의하여 좋은 방법으로 추천되었으며 진로결정상태 유형화 연구들의 대부분이 채택한 Ward(1963)의 최소 변량기법(minimum variance technique)을 적용하였다. 이 군집 분석 방법은 최소의 집단 내 변량과 최대의 집단 간 변량을 가지도록 군집들을 위계적으로 형성시킨다. 군집의 적정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Semipartial  $R^2$ 값을 오차항(error terms)으로 해석하였다(Statistical Analysis System, 1985; Wanberg & Muchinsky, 1992에서 재인용). 이 방법에서는 가능한 군집의 개수에 대한 오차항의 도표를 보아 오차항이 갑자기 증가하는 첫 지점을 적정 군집 수로 결정한다.

군집의 적정개수에 의해 군집들이 결정된 후, 그들의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군집들이 각각의 변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분류의 타당성을 검증(Aldenderfer & Blashfield, 1985)하는 동시에 군집들의 특성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군집들이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등의 변인들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를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자료에 대한 모든 통계 처리는 SAS PC+package를 이용하였다.

## 결과 및 해석

###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정성, 편안성, 미결정,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정성	편안성	이유들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
결정성	1.0000					
편안성	.4525***	1.0000				
이유	.5965***	.5778***	1.0000			
특성불안	.1793**	.3693***	.3653***	1.0000		
진로정체감	.5175***	.5604***	.8496***	.4187***	1.0000	
통제소재	.1759**	.2134***	.2794***	.2356***	.2593***	1.0000

\*\*  $p < .01$ , \*\*\*  $p < .001$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산출된 Pearson 상관 계수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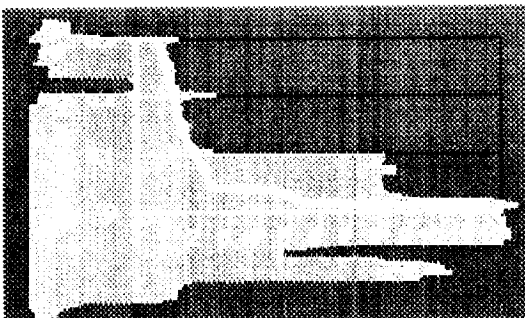
여섯 개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본 결과 결정성과 특성불안, 결정성과 통제소재는 .01수준에서, 그리고 기타 변인들 간에는 .001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진로결정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 상태에 대해 편안하지 못하게 느끼고 있고, 진로 미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으며, 특성불안 수준이 높고, 진로정체감이 확고하지 못하며, 외적 통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군집분석

결정성 및 편안성의 총점, 그리고 이유차원을 측정했던 미결정 척도 16문항에 대한 측정 결과를 Ward의 군집분석 방법, 즉 최소변량기법을 적용하여 피험자들이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적정군집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군집수에 대한 Semipartial  $R^2$  오차항을 검토하였다. 군집수의 변화에 따른 Semipartial  $R^2$  오차값의 변화를 도표로 그려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보면 군집수가 6에서 5로 될 때 처음으로 오차값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1〉 군집수의 변화에 따른 Semipartial  $R^2$  오차값의 변화



다시 군집수가 3에서 2로 될 때 오차값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른 군집수의 변화추이에서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차값의 급격한 증가는 군집이 병합될 때 정보가 크게 손실됨을 의미한다. 오차값이 갑자기 증가하는 첫 지점이 적정군집수로 결정되므로 적정 군집수는 여섯 개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여섯 개의 군집은 다시 세 개의 상위군집으로 묶여질 수 있을 것이다. 군집의 특성을 규명하여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일단 군집분석 결과 나온 군집의 번호로서 군집을 부르기로 한다.

## 3. 진로결정상태 세 차원에 있어서 군집들 간의 비교

피험자를 여섯 군집으로 나누었을 때 결정성, 편안성, 이유 및 이유 차원을 측정했던 미결정 척도의 각 문항의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그 차이가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차원의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일원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군집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인에서 여섯 군집들은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의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에 대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차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각각 표 5, 표 6, 표 7에 제시하였다.

결정성의 차원에서 각 군집들 간의 이질성 여부를 본 결과(표 5) 군집1과 6, 그리고 군집2와 4를 제외한 모든 비교의 쌍에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나타났다. 즉 군집1과 6, 군집2와 4는 서로 동질적인 집단이며, 기타 군집의 쌍들은

〈표 3〉 진로결정상태 세 차원의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

( ) 안은 표준편차

차원 \ 군집	1(n=45)	2(n=91)	3(n=71)	4(n=41)	5(n=55)	6(n=27)	전 체
결정성	2.24(0.61)	5.88(1.48)	3.79(1.37)	5.29(1.31)	10.80(2.05)	2.52(0.80)	5.41(3.09)
편안성	4.24(1.38)	10.09(1.34)	7.00(1.55)	13.68(1.33)	12.51(2.38)	11.63(2.24)	9.60(3.48)
이 유	25.40(6.27)	39.38(5.99)	34.54(4.93)	42.76(4.75)	44.71(4.29)	30.04(5.45)	36.98(8.23)
문항 1	1.42(0.58)	2.00(0.65)	1.97(0.79)	2.17(0.77)	2.27(0.73)	1.89(0.89)	1.97(0.76)
문항 2	1.73(0.58)	2.55(0.75)	2.44(0.69)	2.10(0.66)	2.42(0.76)	2.19(0.92)	2.31(0.77)
문항 3	1.09(0.29)	1.82(0.78)	1.66(0.74)	2.22(0.96)	2.38(0.78)	1.37(0.69)	1.79(0.84)
문항 4	1.71(0.89)	1.15(0.86)	1.83(0.72)	2.10(1.02)	2.35(0.89)	1.44(0.70)	1.99(0.88)
문항 5	1.47(0.63)	2.48(0.81)	1.72(0.68)	2.63(0.94)	3.13(0.77)	1.11(0.32)	2.19(0.98)
문항 6	1.47(0.59)	2.51(0.74)	1.80(0.73)	2.78(0.94)	3.07(0.54)	1.63(0.74)	2.27(0.91)
문항 7	1.40(0.54)	2.09(0.69)	1.82(0.59)	2.39(0.86)	2.22(0.76)	1.78(0.80)	1.97(0.76)
문항 8	1.38(0.58)	2.14(0.80)	2.08(0.75)	2.59(0.84)	2.67(0.70)	1.63(0.84)	2.13(0.86)
문항 9	1.33(0.56)	2.63(0.85)	2.42(0.89)	3.10(0.83)	3.02(0.93)	1.81(0.83)	2.46(1.00)
문항10	1.62(0.83)	2.62(0.76)	2.44(0.71)	3.02(0.65)	3.31(0.63)	2.11(0.97)	2.57(0.90)
문항11	1.31(0.47)	2.38(0.74)	1.90(0.54)	2.76(0.86)	3.16(0.60)	1.70(0.82)	2.25(0.89)
문항12	1.40(0.58)	2.52(0.72)	2.16(0.84)	2.88(0.78)	3.16(0.71)	1.63(0.79)	2.36(0.94)
문항13	1.62(0.68)	2.75(0.72)	2.32(0.77)	2.41(0.87)	2.65(0.73)	1.96(0.85)	2.38(0.84)
문항14	1.73(0.69)	2.59(0.60)	2.32(0.71)	2.93(0.79)	2.55(0.69)	2.41(1.05)	2.44(0.79)
문항15	2.47(0.87)	3.25(0.55)	2.87(0.75)	3.54(0.50)	3.53(0.57)	2.63(1.04)	3.09(0.79)
문항16	2.24(0.98)	2.90(0.65)	2.82(0.70)	3.15(0.76)	2.82(0.84)	2.74(0.86)	2.80(0.81)

\* 접수범위: 결정성=2-16, 편안성=2-16, 이유=16-64, 문항1-16=1-4

모두 상호 이질적인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편안성의 차원에서 각 군집들 간의 이질성 여부를 본 결과(표 6) 군집5와 6을 제외한 모든 비교의 쌍에서 유의한 차이( $p < .05$ )가 나타났다. 즉 군집5와 6만이 서로 동질적인 집단이며, 기타 군집의 쌍들은 모두 상호 이질적인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미결정 척도의 총점을 가지고 이유의 차원에서 각 군집들 간의 이질성 여부를 본 결과 (표 7) 군집2와 4, 군집4와 5를 제외한 모든 비교의 쌍에서 유의한 차이( $p < .05$ )가 나타났다. 즉 군집2와 4, 군집4와 5는 상호 동질적인 집단이며, 기타 군집의 쌍들은 모두 상호 이질적인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 4. 군집들에 대한 명명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에서 세 군집의 특성을 간명히 요약해 줄 수 있는 명칭을 붙이기 위해 우선 결정성과 편안성에서 세 군집의 특징을 보기로 하였다. 결정성과 편안성은 원점 수로써 결정성, 편안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표 3을 보기로 한다. 표 3에서 결정성의 차원에 있어서 각 군집의 평균을 보면 군집5를 제외한 모든 군집은 8점 이하이므로 진로 결정으로 판정할 수 있고, 군집5는 8점 이상이므로 진로미결정으로 판정할 수 있다(결정성은 두 개의 8점척도 문항의 총점으로 나타나는데, 8점척도에서 1~4점까지는 결정, 5~8점까지는 미결정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진로를 결정했다면 두 문항의 총점은 8점 이하이어야 한다. 편안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가 적용된다. 또한 편안성의 차원을 보면 군집1과 3은 8점 이하이므로 자신의 진로 결정상태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판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군집들은 8점 이상으로 자신의 진로결정상태에 대해 편안히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군집1은 '결정-편안', 군집2는 '결정-불편', 군집3은 '결정-편안', 군집4는 '결정-불편', 군집5는 '미결정-불편', 군집6은 '결정-불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앞에서 여섯 개의 군집이 다시 세 개의 상위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결정-편안'으로 요약된 군집1과 3이 하나의 상위군집으로 병합되어 있었고, '결정-불편'으로 요약된 군집2, 4, 6이 다른

하나의 상위군집으로 병합되어 있었으며, '미결정-불편'으로 요약된 군집5가 나머지 하나의 상위군집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한편 이유 차원에 있어서 각 군집의 특성을 보기 위해 군집별로 미결정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들을 뽑아 보았다. 이들 문항의 내용은 미결정 및 불편감의 구체적인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를 종합하기에 좋도록 이를 결정성과 편안성에 있어서의 각 군집의 특성과 함께 표로 만든 것이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군집1을 보면 미결정 척도의 모든 문항의 평균이 2.5 이하로서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군집에 따른 진로결정상태 세 차원의 일원분산분석

	변량원	자유도	전체자승화	평균자승화	F
결정성	집단간	5	2481.75	496.35	244.46***
	집단내	324	657.84	2.03	
	전 체	329	3139.59		
편안성	집단간	5	3052.47	610.49	214.88***
	집단내	324	920.53	2.84	
	전 체	329	3973.00		
이유들	집단간	5	12939.94	2587.99	89.89***
	집단내	324	9327.87	28.79	
	전 체	329	22267.81		
문항1	집단간	5	20.45	4.09	7.78***
	집단내	324	170.30	0.53	
	전 체	329	190.75		
문항2	집단간	5	24.23	4.85	9.24***
	집단내	324	169.86	0.52	
	전 체	329	194.09		
문항3	집단간	5	54.97	10.99	19.90***
	집단내	324	179.02	0.55	
	전 체	329	233.99		

\*\*\* p < .001

(표4. 계속)

	변량원	자유도	전체자승화	평균자승화	F
문항4	집단간	5	23.20	4.64	6.43***
	집단내	324	233.78	0.72	
	전 체	329	256.97		
문항5	집단간	5	135.01	27.00	48.99***
	집단내	324	178.58	0.55	
	전 체	329	313.59		
문항6	집단간	5	106.78	21.36	41.63***
	집단내	324	166.22	0.51	
	전 체	329	273.00		
문항7	집단간	5	29.18	5.84	11.93***
	집단내	324	158.52	0.49	
	전 체	329	187.70		
문항8	집단간	5	57.08	11.42	20.15***
	집단내	324	183.57	0.57	
	전 체	329	240.65		
문항9	집단간	5	104.78	20.96	29.87***
	집단내	324	227.29	0.70	
	전 체	329	332.06		
문항10	집단간	5	86.06	17.21	30.82***
	집단내	324	180.97	0.56	
	전 체	329	267.03		
문항11	집단간	5	114.41	22.88	50.70***
	집단내	324	146.21	0.45	
	전 체	329	260.62		
문항12	집단간	5	108.97	21.79	39.48***
	집단내	324	178.84	0.55	
	전 체	329	287.81		
문항13	집단간	5	47.23	9.45	16.39***
	집단내	324	186.66	0.58	
	전 체	329	233.89		
문항14	집단간	5	35.92	7.18	13.92***
	집단내	324	167.24	0.52	
	전 체	329	203.16		
문항15	집단간	5	47.64	9.53	19.73***
	집단내	324	156.45	0.48	
	전 체	329	204.09		
문항16	집단간	5	19.87	3.97	6.58***
	집단내	324	195.53	0.60	
	전 체	329	215.40		

\*\*\* p &lt; .001

〈표 5〉 결정성에 대한 군집들 간의 Scheffé 사후검증  
( $p < .05$ )

군집	1	2	3	4	5	6
1						
2	이질					
3	이질	이질				
4	이질	동질	이질			
5	이질	이질	이질	이질		
6	동질	이질	이질	이질	이질	

문항15, 1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수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군집1은 '안정결정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는 '결정-불편' 집단에 속했는데 미결정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을 검토해 보면, 이들은 일단 직업을 결정하기는 했으나 다른 많은 분야에도 관심과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진로 관련 검사나 직업 정보 및 외부로부터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군집2는 '다재다능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진로를 결정했고 결정상태를 다소는 편안히 느끼고 있지만, 똑같이 호감이 가는 다른 직업들이 있어서 아직 확고한 결정에 이르지는 못하고 진로 관련 검사나 다른 직업들에 대한 정보 및 외부로부터의 지지 또는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군집3은 '잠정결정형'으

〈표 6〉 편안성에 대한 군집들 간의 Scheffé 사후검증  
( $p < .05$ )

군집	1	2	3	4	5	6
1						
2	이질					
3	이질	이질				
4	이질	이질	이질			
5	이질	이질	이질	이질		
6	이질	이질	이질	이질	이질	

〈표 7〉 이유에 대한 군집들 간의 Scheffé 사후검증  
( $p < .05$ )

군집	1	2	3	4	5	6
1						
2	이질					
3	이질	이질				
4	이질	동질	이질			
5	이질	이질	이질	동질		
6	이질	이질	이질	이질	동질	

로 명명하였다.

군집4는 진로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진로결정상태에 대해서 모든 군집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불편감을 보인 집단이다. 미결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들을 통해 볼 때 이들은 선택에 대한 강한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흥미나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심리적 불안에 쫓겨 조급하게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뒤에 보고하겠지만, 이들은 특성 불안 수준이 모든 군집들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진로정체감에 있어서도 미결정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군집4는 '불안결정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5는 유일하게 진로미결정으로 판정된 집단으로서 자신의 진로결정상태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불편감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진로 선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경험이 부족한 만성적인 우유부단성의 문제였다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의 극단적인 부족으로 혼돈속에서 진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집5는 '혼돈미결정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6은 결정성 차원에서 안정결정형광 동질 집단으로 나타날 정도로 진로를 어느 정도 분히 결정하기는 했으나 높은 수준의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어

〈표 8〉 세 차원에 있어서 각 군집의 특성

( ) 안은 평균

군집 \ 차원	결정성	편안성	미결정척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들
군집1	결정(2.24)	편안( 4.24)	15(2.47), 16(2.24)
군집2	결정(5.88)	불편(10.09)	15(3.25), 16(2.90), 13(2.75), 9(2.63), 10(2.62)
군집3	결정(3.79)	편안( 7.00)	15(2.87), 16(2.82), 2(2.44), 10(2.44), 9(2.42)
군집4	결정(5.29)	불편(13.68)	15(3.54), 16(3.15), 9(3.10), 10(3.02), 14(2.93), 12(2.88)
군집5	미결정(10.80)	불편(12.51)	15(3.53), 10(3.31), 11(3.16), 12(3.16), 5(3.13), 6(3.07), 9(3.02)
군집6	결정(2.52)	불편(11.63)	16(2.74), 15(2.63), 14(2.41)

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걱정이 많고,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지지 또는 다른 직업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도움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군집6은 '수행불안형'으로 명명하였다.

### 5.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에 있어서의 군집들 간의 비교

Aldenderfer와 Blashfield(1985)는 군집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군집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외적 변인들에 있어서 군집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군집 분류의 타

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군집들의 특성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기 위해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에 있어서 군집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군집들의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변인들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9에,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군집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특성불안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안정결정형, 가장 높은 집단은 불안결정형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이 가장 확고히 발달되어 있는 집단은 안정결정형, 가장 불확실한 집단은 혼돈미결정형으로 나타났

〈표 9〉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의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

( ) 안은 표준편차

	안정결정형 (군집1)	다재다능형 (군집2)	잠정결정형 (군집3)	불안결정형 (군집4)	혼돈미결정형 (군집5)	수행불안형 (군집6)	전 체
특성불안	41.87(8.43)	46.16(7.67)	43.35(8.50)	51.12(7.64)	50.05(6.45)	47.30(7.57)	46.33(8.33)
진로정체감	33.91(6.95)	45.92(6.40)	41.80(7.31)	51.00(5.94)	52.40(5.26)	40.44(6.97)	44.66(8.73)
통제소재	4.84(2.61)	5.81(2.47)	4.66(2.27)	6.22(2.96)	6.33(2.75)	5.52(2.55)	5.55(2.63)

☞ 점수범위 : 특성불안=20-80, 진로정체감=18-72, 통제소재=0-15

〈표 10〉 군집에 따른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의 일원분산분석

	변량원	자유도	전체자승화	평균자승화	F
특성불안	집단간	5	3258.22	651.64	10.80***
	집단내	324	19544.78	60.32	
	전 체	329	22803.00		
진로정체감	집단간	5	11346.78	2269.36	53.56***
	집단내	324	13729.21	42.37	
	전 체	329	25075.99		
통제소재	집단간	5	136.32	27.26	4.13**
	집단내	324	2137.50	6.60	
	전 체	329	2273.82		

\*\* p< .01, \*\*\* p< .001

다. 한편 외적 통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잠정결정형으로, 가장 높은 집단은 혼돈미결정형으로 나타났다.

표 10을 보면 여섯 개의 군집들은 특성불안과 진로정체감에 있어서는 .001수준에서, 통제소재

에 있어서는 .01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군집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외적인 변인들에서 군집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군집 분류는 타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1〉 특성불안에 대한 군집들 간의 Scheffé 사후검증

(p< .05)

	안정결정형 (군집1)	다재다능형 (군집2)	잠정결정형 (군집3)	불안결정형 (군집4)	혼돈미결정형 (군집5)	수행불안형 (군집6)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동질					
잠정결정형	동질	동질				
불안결정형	이질	이질	이질			
혼돈미결정형	이질	동질	이질	동질		
수행불안형	동질	동질	동질	동질	동질	

〈표 12〉 진로정체감에 대한 군집들 간의 Scheffé 사후 검증

(p< .05)

	안정결정형 (군집1)	다재다능형 (군집2)	잠정결정형 (군집3)	불안결정형 (군집4)	혼돈미결정형 (군집5)	수행불안형 (군집6)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이질					
잠정결정형	이질	이질				
불안결정형	이질	이질	이질			
혼돈미결정형	이질	이질	이질	동질		
수행불안형	이질	이질	동질	이질	이질	



〈표 13〉 통제소재에 대한 군집들 간의 Scheffé 사후검증

( $p < .05$ )

	안정결정형 (군집1)	다재다능형 (군집2)	잠정결정형 (군집3)	불안결정형 (군집4)	혼돈미결정형 (군집5)	수행불안형 (군집6)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동질					
잠정결정형	동질	동질				
불안결정형	동질	동질	동질			
혼돈미결정형	동질	동질	이질	동질		
수행불안형	동질	동질	동질	동질	동질	

한편 군집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에 대해 각각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각각 표 11, 표 12, 표 13과 같다.

특성불안에 있어서는 특성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불안결정형이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및 잠정결정형과 각각 상호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고, 혼돈미결정형이 안정결정형 및 잠정결정형과 상호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모든 비교의 쌍들은 상호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불안결정형은 진로결정집단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결정집단보다는 미결정 집단인 혼돈미결정형과 불안수준이 같은 점이 주목된다. 한편 특성불안이 가장 낮은 안정결정형은 불안결정형과 혼돈미결정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들과의 비교의 쌍에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에 있어서는 잠정결정형과 수행불안형 간에, 그리고 불안결정형과 혼돈미결정형 간에만 상호 동질적 집단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비교의 쌍들에서는 모두 상호 이질적인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불안결정형은 결정집단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특성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로정체감에 있어서도 미결정집단인 혼돈미결정형과 동

질적 집단임이 주목된다.

통제소재에 있어서는 외적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잠정결정형과 가장 높은 혼돈미결정형만이 상호 이질적 집단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비교의 쌍들은 상호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진로상담 내담자에 대한 진단적 유형화를 위해 Jones와 Chenery(1980)가 제시한 진로결정상태모형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를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결정상태모형을 구성하는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을 각각 측정 한 후, 이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들의 특성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 등의 외적 변인에 있어서 군집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우선 진로결정상태와 외적 변인간의 관계를 보면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등의 변인들 모두가 진로결정상태를 구성하는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미결정과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관심인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은 여섯 가지로 나타났다. 각 유형에는 진로결정상태를 이루는 세 차원에 있어서의 특성에 따라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잠정결정형, 불안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 등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안정결정형은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안정된 집단으로서 비교적 확고하게 진로를 결정한 유형이다. 다재다능형은 일단 직업을 결정하는 했지만 다른 많은 분야에 관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정결정형은 진로를 결정했고 결정상태를 다소는 편안히 느끼고 있지만, 똑같이 호감이 가는 다른 직업들이 있어서 아직 확고한 결정에 이르지 못한 유형이다. 불안결정형은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흥미나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심리적 불안에 쫓겨 조급하게 진로를 결정한 유형이다. 혼돈미결정형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가장 곤란을 느끼고 있는 유형으로서, 정체감 및 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혼돈 속에서 진로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수행불안형은 진로를 어느 정도 분명히 결정하는 했으나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이 여섯 유형은 군집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외적 변인들, 즉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에 있어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군집분류가 적절하여 외적인 타당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섯 개의 유형들은 다시 세 개의 상위군집으로 병합될 수 있었는데 결정-편안 집단에 속한 안정결정형과 잠정결정형이 하나의 상위군집을, 결정-불편 집단에 속한 다재다능형과 불

안결정형, 수행불안형이 다른 하나의 상위군집을, 그리고 미결정-불편 집단에 속한 혼돈미결정형이 나머지 하나의 상위군집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결정성, 편안성의 두 차원을 반영한 세 개의 군집이 상위군집으로 나타나고, 그 아래에 이유 차원을 반영한 여섯 개의 하위군집이 속해 있는데 적정 군집의 개수가 여섯 개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진로결정상태모형의 세 차원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삼차원적 진로결정상태모형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진로결정상태모형을 채택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진로 미결정 관련 척도 및 다양한 성격 변인들을 군집분석에 포함시킨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네 개 또는 다섯 개의 유형을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유의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미결정 척도에 대해 군집분석을 적용한 Savickas와 Jarjoura(1991)는 다섯 개의 유형 및 아홉 개의 하위유형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유형화 연구들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마다 유형화를 위해 서로 다른 변인 및 측정도구들을 선택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화를 위해 서로 다른 변인들을 사용한 연구들은 설사 유형의 수가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진로결정상태와 긴밀히 관련된 성격 변인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연구들마다 서로 다른 성격 변인들을 유형화에 포함시킨 결과 연구 결과들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함을 지적하고, 진로결정상태 관련 변인만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성격변인들을 포함시킨 유형화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미결정 척도만으로 군집분석을 적용한 Savickas와 Jarjoura(1991)의 연구도 이유이라는 하나의 차원만으로 유형화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결정-편안' 집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Jones와 Chenery(1980), Jones(1989), Wanberg와 Muchinsky(1992)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추측컨대 이러한 차이는 이들 연구가 행해진 미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졸자들의 취업난으로 인해, 특히 본 연구가 진행된 1997년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가중된 취업난으로 인해 신입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속한 세 개의 대학교들은 취업조건에서 볼 때 중상위로 평가될 수 있는 대학들로서 상위의 학교에 비해 취업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진로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서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었다. 아마도 보다 상위에 속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진로 미결정의 경우에도 취업이 거의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리 불편감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결정-편안 집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구 대상자의 선정에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특성불안에 있어서 유형들 간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결정형은 진로 결정 집단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결정 집단보다는 미결정 집단인 혼돈미결정형과 동질 집단인 것

로 나타났으며, 함께 결정-불편 집단에 속하는 다재다능형과도 이질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성불안에 있어서 결정 집단내에 이질 집단이 혼재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불편 집단내에도 이질 집단이 혼재해 있는 것이다. 이는 진로결정상태와 특성불안 등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할 때 진로결정상태의 집단을 결정성의 차원만으로, 또는 결정성과 편안성의 차원만으로 분류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가 손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진로미결정과 특성불안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혼란된 결과를 보인 원인이 결정성 차원만으로 집단을 분류한 데 있는 것 같다고한 Jones와 Chenery(1980)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Newman, Fuqua 및 Minger(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된 것이다. 결정성 및 편안성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제3의 차원이 이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이유 차원이 가능한 하나의 대안임에는 분명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상담의 실제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연구결과 나타난 여섯 개의 유형은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로상담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안정결정형의 경우에는 진로상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들이 진로상담에 응할 경우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외부로부터 지지와 확신을 얻기를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흥미, 적성검사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상담법으로 족할 것이다. 다재다능형의 경우 직업에 대한 태도를 검토한 후, 직업과 더불어 여가를 이용한 취미 생활을 함께 고려하여 자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성과 흥

미, 가치관을 다각적으로 재고해 보도록 하는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잠정결정형의 경우 전통적인 진로상담 접근법에 따라 내담자의 적성, 흥미,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잠정적으로 결정한 직업 및 호감을 느끼고 있는 다른 직업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해 보도록 할 수 있다. 불안결정형의 경우 진로문제와 관련한 심리적 불편감의 원인을 설명해주고, 진로 관련 문제를 다루기 전에 불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이어 진로정체감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하여 이미 결정한 직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 및 흥미, 적성, 가치관을 검토한 후 다양한 직업 정보를 수집, 검토하는 작업으로 옮겨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혼돈미결정형의 경우 불안결정형과 마찬가지로 높은 특성불안 및 낮은 진로정체감 수준을 보이므로 불안결정형과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불안형의 경우는 우선 직업에 대한 태도 및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충분한 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해본 후, 태도 및 적성이 적절한 경우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 과정들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계획을 세워 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를 위해 구성한 결정성, 편안성, 이유 척도의 20문항은 진로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 차원에 있어서 각 군집의 특성을 요약한 <표 8>은 내담자의 진로결정상태 및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는 표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대학생 집단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조건과 관련하여 중상위수준에 속하는 세 개 대학의 재학생으로 연구대상을 한정시켰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성별, 학년별, 학과 계열별(약대, 간호대, 예체능계 제외)로는 표집을 한정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학년이 진로결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비율이 1, 2학년에 상대적으로 치중된 점은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중요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취업 조건과 관련된 학교의 수준, 성별, 학년별, 학과계열별로 연구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구성 비율을 균등히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실시상의 편의를 위해, 유형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얻기 위한 외적 변인으로서 특성불안, 진로정체감, 통제소재만을 고려하였다. 유형들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처유형, 의사결정유형,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등 기타 관련 변인들을 더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행해진 선행연구들에서와는 달리 통제소재가 유형들 간의 차이를 기술하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문화적 차이인지, 측정 도구상의 문제인지가 분명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Rotter(1966)의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을 차재호 등(1973)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정한 척도를 사용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Rotter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한

다면 이 문제의 파악에 좀더 접근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넷째, 본 연구결과 나온 여섯 개의 유형들 중  
결정성의 차원만을 볼 때 결정집단에 속하는 유  
형이 다섯 개임에 비해, 미결정집단에 속하는  
유형은 단 한 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결정집단 내에 보다 세분화된 유형이 존재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가 결정  
및 미결정집단을 나누는 기준상의 문제에서 기  
인하는지, 표집의 문제에 기인하는지, 자기보고  
식 질문지의 문제에서 기인하는지는 확실치 않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충  
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있을 진로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본 연구와 같은 유형화 연구의  
결과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고 싶다.  
그간의 연구들은 한결같이 내담자들의 이질성을  
무시한 처치를 해왔으나, 내담자들의 유형을 고  
려하여 차별적인 처치방법을 고안, 실시한다면  
보다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  
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  
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5).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  
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  
담과 심리치료. 7(1), 20-43.
-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 내-외 통제 척도  
작성.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우트. 2(19),  
263-271.
- Aldenderfer, M. S., & Blashfield, R. K. (1985).  
Cluster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s.
- Ashby, J. D., Wall, H. W., & Osipow, S. H. (1966).  
Vocational certainty and indecision in  
college freshme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4, 1037-1042.
- Baird, L. L. (1969). The undecided student  
How different is 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7, 429-434.
- Barak, A., & Friedkes, R. (1981).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ndecision subtypes on  
career counseling effect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120-128.
- Bohn, M. J. (1968). Vocational indecision and  
interest development in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9, 393-396.
- Borgen, F. H., & Barnett, D. C. (1987). Applying  
cluste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56-468.
- Callanan, G. A., & Greenhaus, J. H.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12-231.
- Chartrand, J. M., & Camp, C. C. (1991).  
Advances in the measurement of career  
development constructs: A 20 year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1-39.
- Crites, J. O. (1969). Problems in vocational  
choice.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4-373.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oodson, W. D.(1981). Do career development needs exist for all students entering colleges or just the undecided majo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2, 413-417.
- Goodstein, L. D.(1965) Behavior theoretical views of counseling. In B. Steffire(Ed.). *Theories of Counseling*(pp. 140-192). New York: McGraw-Hill.
- Gordon, V. N.(1995). *The Undecided College Student*(2nd ed.). Illinois: Thomas Books
- Greenhaus, J. H., & Simon, W. E.(1977). Career salience, work values,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 104-110.
- Harman, R. L.(1973). Students who lack vocational identity.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1, 169-174.
- Hartman, B. W., Fuqua, D. R., & Blum, C. R.(1985). A path-analysis model of career indecis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3, 231-240.
- Hartman, B. W., Fuqua D. R., & Jenkins, S. J.(1986). The reliability/generalizability of the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8, 142-148.
- Hawkins, J. G., Bradley, R. W., & White, G. W.(1977). Anxiety and the process of deciding about a major and vo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3), 398-403.
- Heppner, M. J., & Hendricks, F.(1995). A process and outcome study examining career indecision and in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26-437.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6), 1191-1200.
- Holland, J. L., & Holland, J. 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414.
- Jones, L. K.(1989). Measuring a three 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77-486.
- Jones, L. K., & Chenery, M. F.(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5), 469- 477.
- Kaplan, D. M., & Brown, D.(1987). The role of anxiety in career indecisive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148-162.
- Kimes, H. G., & Troth, W. A.(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4), 277-280.
- Larson, L. M., & Heppner, P. P.(1985). The relationship of problemsolving appraisal to career decision and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55-65.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1988). Investigating multiple

-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39-446.
- Long, B. E., Sowa, C. J., & Nile, S. G.(1995). Differences in student development reflected by the career decisions of college senio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1). 47-52.
- Lucas, M. S.(1993).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40-446.
- Mendoca, J. D., & Siess, T. F.(1976). Counseling for indecisiveness: Problemsolving and anxietymanagement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4), 339-347.
- Newman, J. L., Fuqua, D. R., & Minger, C.(1990). Further evidence for the use of career subtypes in defining career statu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178-188.
- O'Hare, M. M., & Tamburri, E.(1986). Coping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3), 255-264.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Robbins, S. B.(1987). Predicting change in career indecision from a self- psychology perspectiv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288-296.
- Savickas, M. L., & Jarjoura, D.(1991). The Career Decision Scale as a type indicat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85-90.
- Taylor, K. M.(1982). An investigation of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Correlates and moder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318-329.
- Taylor, K. M., & Bets,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aylor, K. M., & Popma, J.(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7-31.
- Walters. L., & Saddlemire, G.(1979). Career planning needs of college freshmen and their perceptions of career plann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0, 224-229.
- Wanberg, C. R., & Muchinsky, P. 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 Wigent, P. A.(1974). Personality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cision-making abilities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5, 105-108.

## A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tatus by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Hye-Sung Lee**

**Hye-Gyoung Hong**

Ewha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out subtyp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tatus according to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proposed by Jones and Chenery(1980). Applying cluster analysis to three dimensions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this study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to the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subtyp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tatus, and differences among subtypes.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0 students(male 176, female 154) from three universities in Seoul. A set of questionnaires(Decidedness scale and Comfort scale of Career Decision Profile, Indecision scale of Career Decision Scale, Trait-Anxiety Inventory of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Identity scale of My Vocational Situation,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was administered.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cor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showed that this model is applicable to the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tatus. The resulting 6-cluster solution described subtyp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tatus. These six subtypes were named as confident decided type, multipotentialed type, tentative decided type, anxious decided type, confused undecided types, and implement anxious type. These subtyp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variables included in cluster analysis and in trait-anxiety, vocational identity, and locus of control. Implications for vocational counseling and future research on the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are discussed.